

# 바이오 날개 단 허인철號… 160조 中 시장공략·실적 신기록

〈오리온 부회장〉

오리온 3분기 매출 5974억 기록  
中·베트남 등 글로벌 법인 성장세  
“시장 선도할 신제품 지속 출시”

오리온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글로벌 제과 회사를 넘어 헬스케어 시장까지 주도할 채비를 마쳤다. 오리온은 최근 제과업계 최초로 중국 바이오 시장에 진출하면서 허인철 부회장이 그려왔던 미래 성장동력 ‘4대 신사업’ 윤곽을 드러냈다. 1956년 동양제과공업으로 제과업을 해온 지 64년 만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중국 국영 제약기업 ‘산동루캉의약(이하 루캉)’과 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합자 계약을 체결했다. 오리온과 루캉은 각각 65%, 35% 지분을 투자하고 합자법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리온은 바이오 진단 전문기업 ‘수젠테’ 결핵 진단키트와 ‘지노믹트리’ 대장암 진단키트의 중국내 인허가를 추진, 판매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바이오 사업 역량을 키워 장기적으로 합성의약품, 신약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오리온의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에 진출은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오리온홀딩스-산동루캉의약 한·중 바이오 사업 합자계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허인철 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평신 산동루캉의약 동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근 바이오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바이오 시장 전반을 공략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확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 부회장은 “오리온의 중국 내 브랜드 파워와 시장의 높은 신뢰도, 사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술을 현지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며 “간편대용식, 음료에 이어 그룹 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글로벌 식품·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글

로벌제과회사인 오리온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법인은 2020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4.4%, 영업이익이 1.6% 성장했다.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헬스케어기업으로의 도약은 지난 2014년 사령탑에 오른 허 부회장의 성과로 평가된다. 1986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1997년부터 신세계그룹 재무통이었던 허 부회장은 매년 신규사업을 만들며 오리온의 체질 개선을 주도해왔다. 그는 여러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협상 전문가,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허 부회장은 지휘봉을 잡으면서 ‘4대 신사업’으로 ‘디저트 사업’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 오리온은 지난 2017년 12월 ‘디저트 초코파이’를 출시하고 전문 판매점 ‘초코파이 하우스’를 오픈했다. 최근 디저트 초코파이는 편의점에까지 입점하며 채널을 늘려가고 있으며, 온라인 커머스를 통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18년 허 부회장은 두 번째 신사업으로 간편대용식 ‘마켓오 네이처’의 ‘오!그래놀라’와 ‘오!그래놀라바’를 런칭했다. 해당 간편대용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긴 건강 트렌드와 집밥 수요 증가 영향으로 누적 판매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올해 8월 기준) 증가했다.

신사업 2개를 성공시킨 허 부회장은 2019년 12월 프리미엄 미네랄워터 ‘오리온 제주용암수’를 출시하며 생수 시장에 진출, 새로운 영역에도 발을 내딛었다. 최근에는 완제음료(RTD) 신제품 ‘닥터유 드링크 비타민’을 출시하면서 음료사업도 확장중이다.

신사업이 순항한 결과 오리온은 올 3·4분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오리온그룹은 사업회사 오리온이 올해 3·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974억원, 영업이익 1078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7%, 영업이익은 6.0% 성장한 수치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4분기 실적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글로벌 제과 회사답게 오리온의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법인들이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 모두 19%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도 글로벌 식품회사 수준(18%)을 이어나갔다.

허 부회장의 마지막 신사업은 바이오로 귀결되고 있다. 업계 역시 64년 만에 기존 주력사업을 넘어 160조원 규모 바이오 시장에 진출한 오리온의 도전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기존 4대 사업이었던 디저트, 간편식, 음료, 건기식 식품 카테고리를 넘어 ‘글로벌 식품·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오리온 관계자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성장세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간편대용식, 음료, 바이오 등 3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식품·헬스케어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1면 ‘KT, 유료방송 1위…’서 계속

## 현대HCN 등 M&A 분주 미디어 외 신사업도 가속

지난해 하반기 기준 딜라이브 가입자는 약 200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5.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일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 스카이라이프 또한 현대HCN M&A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과기정통부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현대HCN을 491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해 M&A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남은 매물인 CMB를 인수해도 KT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디어 콘텐츠뿐 아니라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오는 2025년 통신과 비통신 매출 비율을 5대 5로 달성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는 일명 ABC(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사업 집중하고 있어 미디어뿐 아니라 신사업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

## 외국인 10월 국내주식 1.4兆 순매수… 올해 들어 최대

경제회복·기업 실적개선에 매수 몰려  
채권시장은 한달만에 2080억 순투자

외국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데다 경제회복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3580억원을 순매수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최대치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620억원, 2960억원 규모로 시들였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2조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반면 ▲미주(9000억원) ▲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 현황〉

구분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9월	10월	보유잔액
주식	5,225	▼ 3,588	▼ 2,548	1,358	584,844
채권	10,939	▼ 1,720	▼ 31	208	150,726
합계	16,164	▼ 5,308	▼ 2,579	1,566	735,570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 거래 기준 (단위:십억원)

채권시장에서도 한 달 만에 다시 순투자에 나섰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4조89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3조8810억 원의 영향으로 총 208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4000억원)와 미국(4000억원), 중동(20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유럽(500원)은 순회수에 나섰다.

종류별로는 국채(5000억원), 전분만기 별로는 1~5년 미만(3조2000억원) 및 5년 이상(4000억원) 채권에서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10월 말 기준 150조7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방통위, MBN 재승인 여부 이달 말 결정

총점 650점 미만… 추가 검토 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서 MBN이 재승인 점수 기준에 미달돼 재승인 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승인유보기 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이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 4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JTBC와 매일방송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특히,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체윤정 AI전문기자 echo@

KT는 KT DS와 컨소시엄 형태로 신영증권의 주요 금융거래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38%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량(41.4%)이 내부 업무 시스템 등 중요도가 낮은 곳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권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도입하는 사례는 신영증권의 이번 사업이 최초다.

신영증권의 이번 전환 사업에서 KT는 국내 대표적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의 역량을 발휘하고, KT DS는 ‘클라우드 관리 기업’ 역할을 강화해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들이 신영증권 클라우드 전환을 홍보하고 있다.

/KT

신영증권의 이번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고객이 직접 접속하는 주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나인 기자

Lost documents named Kang Young II  
Date: May 31, 2018,  
Location: Seongdong tax office  
Content: At around 6pm on May 31  
at the Seongdong tax office.  
I lost a set of documents, which is the Sales Contract No. SH-3108/2018 of the Sunwha Pearl project at: 90 Nguyen Huu Canh, Ward 22, Binh Thanh District, named Kang Young II, passport number: M4429023.  
Please contact me if you saw it or found it.  
I would really appreciate that.  
Contact information : Kang Young II,  
Phone: 010-3163-7743